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특성과 변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세은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한국 저널리즘의 특징 중 하나를 언론인의 정계 진출로 규정하고, 언론과 정치의 독특한 접합으로서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를 상정하고자 한다. 언론과 정치 간 인적 이동은 두 영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폴리널리스트는 사회적 자본의 이동과 공유를 통해 언론과 특정 정당 간 유착관계가 형성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제헌국회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은 모두 377명이며, 제헌국회 당시 20.5%를 시작으로 대체로 15% 전후를 유지하다가 16대 20.1%를 기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19대와 20대에는 26명으로 8.7%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주요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언론사 및 정치 관련 경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경북, 경기고와 전주고, 서울대 출신, 정치/외교학과 법학 전공자가 가장 많았다. 출신언론사는 단일단위로 봤을 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이 보수여당 계열로 진출했으며 지역구보다는 경선을 치르지 않는 비례대표/전국구가 많았다. 최근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감소 현상은 언론과 정치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의 변화, 기회 구조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즉, 정치를 향한 언론인의 열망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입법부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폴리널리스트의 유형 또는 진입경로가 다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란 정치 엘리트 총원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과 언론인 출신의 정치적 효용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폴리널리스트가 한국에 유독 많은 이유로는 정치지상주의와 더불어 입신양명을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 문화를 기저로, 정권의 필요에 의한 도구적 동원 및 정치 병행성이 강한 언론 시스템, 낮은 전문직화 수준, 언론 환경의 변화로 인한 직업 안정성 감소 등 다양한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폴리널리스트, 언론인, 국회의원, 정치 병행성, 전문직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0367).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우정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 news@kangwon.ac.kr

1.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문제 제기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예외 없이 언론인 출신들이 상당수 당선되었다. MBC 출신 정동영과 박영선, 신경민, YTN 출신 김영우, 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시민일보 사장 출신 심재권, 문화일보 출신 민병두 등 재선 이상인 경우도 제법 되고, 내일신문과 시사저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대변인을 역임한 김종민, KBS '뉴스9' 앵커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되며 논란을 빚었던 민경욱,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 서형수, 스포츠투데이 출신 김영호,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목포MBC 사장 출신 김성수 등이 새로이 당선되었다. 중앙일보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공보수석을 거쳐 국정홍보처장과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준영 역시 국회의원에는 처음 당선되었다.

조선시대에 언론의 역할을 담당했던 삼사(三司)가 임금을 상대하는 주요 관직이었던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인의 정치지향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지사적 언론인을 강조했던 우리나라의 언론관을 생각하면, 언론인의 정치 참여는 그리 새롭거나 낯선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역시 <협성회보>와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기자와 주필로 활동했으며, 광상훈, 허정, 윤보선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언론인들이 독립운동이라는 정치행위와 언론활동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과거 국회와 정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장기영, 채문식, 김진만, 조세형, 이만섭, 남재희, 이부영, 홍사덕, 최병렬, 강삼재, 김형오 등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주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동영, 이낙연, 정진석, 박영선, 최경환, 서청원 등이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시도지사, 장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등 그 자리 역시 다양화하고 있으며, 언제부터인가 주요 정당과 청와대 대변인은 으레 언론인 출신이 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엄기영, 최문순 등 두 전 MBC 사장이 각기 다른 정당후보로 2011년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에서 맞붙는 진기한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던 MBC 출신 김은혜는 이후 KT 전무로 낙하산 발령이 났으며, KBS 출신 박선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되어 작년 20대 총선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상일 역시 2012년 3월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직행하며 논란을 낳았는데, 이후 곧바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윤창중과 민경욱 등이 '화제'를 몰고 다녔다. 한국일보와 KBS, 세계일보를 거쳐 문화일보에 재직하던 윤창중은 대통령

방미 당시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경질됐으며,¹⁾ KBS 메인 뉴스 앵커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 문화부장으로 재임하던 민경욱은 오전 보도국 회의에 참석했다가 오후에 청와대행을 발표해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묵살한 경우로 지탄을 받았다. 그는 대변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고, 다음 대변인은 MBC 시사제작국장이던 정연국이 이어받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정치로의 이동 경로나 양상이 어제 편집국장이었던 이가 보수여당 공천을 받기도 하고 또 오전에 보도국 회의를 했던 이가 오후에 청와대행을 발표하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은 단순히 직업 이동을 넘어 언론과 정치의 야합이나 언론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와 함께 조명될 필요가 생겼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TV조선 보도본부장과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강효상은 20대 총선에서 집권보수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례인데,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 당시 TV조선 보도본부장이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보도로 사임하게 만들었던 2013년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될 만하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을 보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데에는 최근 각종 굵직한 정치권 비리와 문제들에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의 이름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도 한몫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동아일보에서 ‘뉴라이트 운동’을 기획, 보도했던 인물로 후보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에 입성했는데, 이후 언론정책을 주도하면서 YTN과 MBC 등의 해직사태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선캠프에 합류해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서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핵심요직을 맡아 이명박 정부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박희태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효재 정무수석은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떨어졌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한나라당을 사퇴한 최구식 의원 역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역시 한국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옮긴 기자로, 이명박 대선캠프에 합류한 이후 차관을 거

1) 윤창중은 언론과 정치를 계속해서 오가며 살았던 특이한 이력을 보여준다. 그는 노태우 정권 말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특보도 지냈다.

쳐 2010년 문화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기도 했지만 수많은 의혹으로 자진사퇴했고, 이듬해 이국철 SLS 그룹 회장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김두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얽혀 있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결국 측근 비리와 본인의 뇌물 수수 의혹으로 사퇴했다.

이 연구는 한국 저널리즘의 특징 중 하나를 언론인의 정계 진출로 규정하고, 정치와 언론의 독특한 접합으로서 폴리널리스트를 상정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강명구, 1983; 강준만, 2000; 김주연, 2009; 박용규, 2014)에 의하면, 많은 언론인이 야권보다 보수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일했고, 일부는 언론사나 언론인 탄압을 위한 숙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기도 했다. 정치권력은 6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기자들을 강제 해직, 구속, 구금시켰고, 그와 동시에 많은 기자들을 권력층으로 상승 이동시켰는데(강명구, 1993, 167쪽), 박정희나 전두환, 김영삼 등 역대 정권은 언론에 대한 회유책으로 언론인들에게 정계 진출의 기회를 제공해 효과적으로 언론 통제를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과 노무현 등 소위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청와대로의 이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폴리널리스트에 대해서는 대개 부정적인 의견과 평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인에게 직업윤리를 강요하면서 무조건 정치권 진출을 금할 수는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이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규범을 넘어서 사회정의를 위한 기자의 정치적 현실 참여를 오히려 바람직하게 보는 시각도 있음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는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의 역할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다각적 이해는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정치권력과의 관련성 속에서 맥락화되고 구조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는 물론이고 언론 장 내부의 갈등과 반목, 나아가 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맥락적 논의 및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면밀한 기초자료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폴리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드물뿐더러 국회의원 선거 전후에 단발적으로 언론인 출신에 대한 단편적인 조망이 주를 이루었고, 수십 년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인지를 밝혀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는 있어왔지만, 그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이나 이해의 기반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셈이다. 상당수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현상은 한국만의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것인가? 즉 다른 나라에서는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치를 향한 언론인의 열망은 내재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즉 정치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언론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서 정치적 관심이 배양되는 것인가? 국회의원 외에 다른 정치 분야, 즉 청와대나 행정부로 옮겨가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가? 이들 ‘가시적’인 폴리널리스트 외에 총선이나 공천에서 실패한 ‘비가시적’ 폴리널리스트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러한 연속적인 질문들에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제헌국회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언론인 출신을 전수조사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언론사 관련 경력, 정치 관련 경력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²⁾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를 언론과 정치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로 상정하고, 그 대표적 유형인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실증자료를 통해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언론-정치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 간 인적 이동은 양자의 결속과 유대(solidarity)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사회적 자본의 이동과 공유를 통해 언론과 특정 정당 간 유착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에서 위의 질문들이 모두 답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폴리널리스트라는 집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증적 데이터에 의거해서 밝혀내고 그 변화와 추세를 통해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폴리널리스트 관련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외국 사례

1) 언론과 정치의 관계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적 현실의 대부분은 미디어가 창출한 ‘환상의 결과’이며, 따라서 정치 자체는 ‘중개된 정치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Nimmo & Combs,

2) 국회의원 당선자뿐 아니라 대통령,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직과 청와대 대변인이나 수석, 비서관, 14대 이후 공천 신청자와 총선출마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새누리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에 대해서만 범위를 한정했고 그나마 민주당 신청자 명단이 일부 누락되었다. 특히 청와대 관련 자료는 명단이 따로 나와 있는 곳이 없어 아무리 신문기사나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로 했어도 누락이 생기기 쉽다는 점, 그리고 공천 신청자는 이름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등에서 전수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만을 대상으로 일차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1992). 이렇듯, 시민에게 정치적 현실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이 정치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정치권력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언론과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가져가도록 추동한다. 미디어와 정치의 관계는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핼린과 만치니(Hallin & Mancini, 2004/2009)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 시스템의 비교기준으로 정치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과 더불어 미디어 시장 구조(특히 대중신문의 발전), 전문직주의 발달수준,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국가 개입 정도와 속성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원들에서 언론과 정치 간의 다양한 관계와 맥락이 나온다는 것이다.³⁾

핼린과 만치니가 제시한 네 가지 차원 중에서 특히 언론의 정치 병행성은 언론과 정치, 정치권력, 정당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데 유용하다. 정치 병행성이 강한 언론은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신 정당과 연계한 정파적 수행자로서 정치 게임에 뛰어들다. 민주화 이전 정치권력이 사회 전 분야를 압도하던 시기에 한국 언론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유착관계를 맺는 데 불과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윤영철(2007)은 비로소 1997년 정권 교체로 인해 한국 언론의 정파적 병행관계가 정립되었으며 그들이 대리하는 정치권력과의 공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권력 투쟁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290쪽).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은 민주화 이전에는 권언유착의 상징으로, 민주화 이후에는 정파적 대리인의 ‘커밍아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섯슨(Schudson, 2011/2014)은 사회 내에서 미디어의 위치와 역할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확립된 정치 게임의 규칙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188쪽), 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몇 개의 미디어가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이며 그렇기에 비교적 소수의 언론 종사자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나 회유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치아글리아(Ciaglia, 2013)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3개국 사례를 통해 미디어 시스템과 정치 간의 관계를 공영방송의 정치화와 언론인의 정치 시스템 진출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이탈리아 국회에 언론인 출신이 가장 많으며(12.4%) 영국이나 독

3) 이에 대해 이준웅, 조항제, 송현주, 그리고 정준희(2010)는 한국 언론이 대중매체 급속 발전, 정치 병행성 강화, 전문직화 낮음, 유동적 국가개입 등의 특성을 보이며 공론장에서 이념적 대변자 역할, 정치 선정주의, 갈등재생산적 이념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화 이행기 모델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래 행해진 치밀하고도 노골적인 언론 통제는 “국가와 정당이 사회적 삶의 많은 영역에 강하게 개입하고 다수의 국민이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강한 충성을 지니는 높은 수준의 정치화”(Hallin & Mancini, 2004/2009, 393쪽)를 특징으로 하는 분극적 다원주의 모형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화 수준은 여전히 낮고 국가개입은 강화되었다.

일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이 고도로 정치화된 이탈리아 공영방송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정치 간의 결합을 보여주는 증빙이라 본다. 언론의 정치 병행성이 언론과 정당 간의 중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⁴⁾ 이탈리아에 비해 영국(6.5%)과 독일(3.9%)은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비율도 훨씬 낮을뿐더러 공영방송 역시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치아글리아는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한 사회의 공영방송의 정치화 정도와 언론인의 국회 진출 정도가 언론-정치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⁵⁾ 그의 주장은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종속되다시피 해 온 한국 사회에도 정확히 적용된다고 하겠다.

이탈리아 뉴스는 분석보다 다수당의 대변인과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랑스 정치 뉴스 역시 정당 대변인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 미국은 정당 관계자들의 인용 비율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Schudson, 2011/2014, 193쪽). 이탈리아와 프랑스 언론의 정치 병행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언론의 정치 병행성은 정치 뉴스의 정당중심성, 정당의존성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또한 정치 뉴스의 정당중심성은 출입처 중심의 생산관행을 낳고, 거기에서 언론인과 정치인의 긴밀한 관계가 생겨나며 이러한 경로가 폴리널리스트의 양산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2) 한국의 언론인 정계 진출에 대한 논의

정치와 시민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사나 언론인 탄압을 위한 숙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기도 했고, 보도지침 작성에 관여⁶⁾하기도 했다(김강석, 2001; 김주언, 2009; 박용규, 2014). 언론 통제 이면에는 언론 유인과 특혜가 존재했는데, 언론인의 정치적 충원은 대표적인 언론유인 정책으로 언론인에게 정치적 출세를 보장함으로써 유인을 제공하는 것인 동시에 언론인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활용된 측면이 많았다(김주언, 2009, 218쪽).

4) 이선필(2009)은 이탈리아 언론의 정치권력 유착이 후견제(clientelism)와 정당지배체제라는 정치문화의 특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본다.

5)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는 1994년과 2011년 사이에 이탈리아 수상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미디어셋(Mediaset)이라는 미디어회사를 계속 운영해왔다(Ciaglia, 2013, p. 550).

6) 대표적인 사례로 동아일보 출신 이진희, 조선일보 출신 허문도, 한국일보 출신 이원홍 등을 들 수 있다.

강명구(1993)는 한국 언론의 특징을 언론의 권력기구화로 규정하면서, 언론자본의 성장과 기자집단의 권력으로의 진출을 설명한다(142-143쪽). 정치권력은 196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기자들을 강제 해직, 구속, 구금시켰고, 동시에 많은 기자들을 권력층으로 상승 이동시켰는데, “직무수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많은 기자들이 권력층으로 상승 이동함으로써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가 상호견제, 감시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갔고(…) 기자 집단 자체가 권력기구화하는 현상은 전문직의 이념에서 볼 때 집단 정체성의 위기를 넘어서서 집단의 성격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67쪽). 김지운(1989)은 실증적 사례들을 기반으로 언론인의 유치·충원/동원·이용의 규모가 1980~1981년, 1972~1973년, 3선개헌기, 1961~1963년, 1979년, 6공 계승정권 형성기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면서, 이들의 권력지향 행적과 언론내부의 협력자·기회주의자들이 언론에 남긴 상처와 유산을 치유, 척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역설한다(28쪽, 31쪽).⁷⁾

이러한 진단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폴리널리스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로 언론의 전반적인 신뢰 저하가 지적되어 왔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우리 언론과 언론인이 전문성을 갖추는 데 중대한 방해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강준만(2000)은 강명구의 우려를 공유하면서 개화기부터 김대중 정권하의 언론 역사를 고찰하면서 100년 이상을 관통하는 핵심어로 ‘권력 변환’을 내세운다. 언론이 권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되었고, 그로써 언론이 정치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힘의 크기와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김영삼 등 역대 정권은 언론에 대한 회유책으로 언론인들에게 정계 진출의 기회를 제공, 효과적으로 언론 통제를 해왔고(강준만, 2001; 김해식, 1994; 박용규, 2014),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과 노무현 등 소위 진보성향의 정권이 들어

7) 1961년 이후 1987년까지 정관계에 진출한 언론인은 모두 285명으로, 청와대 18명, 문공부 및 부처대변인 61명, 행정부 및 정부기관 51명, 국회의원 49명, 언론유관 지원기관 8명, 비언론통제권력기관 98명 등이다(김지운, 1989). 이 중 여당국회의원이 17.2%로 야당국회의원 7.4%보다 배 이상을 차지한다. 언론인 출신 정관계 진출자 중 41.7%가 영남 출신이며 서울이 15%, 호남이 10.7%, 충청이 10.1%로 나타나 심각한 지역 편중을 보이고 있다. 첫 진출분야를 보면, 영남의 경우 청와대(50%)와 여당국회의원(49%)으로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서울 출신은 문공부 및 부처대변인(21.3%)으로, 호남 출신은 일반행정부 및 정부기관(15.7%), 경기 및 충청은 언론유관지원기관(각 12.5%)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으로써 핵심요직에는 주로 영남 출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6쪽). 정관계 진출 전 소속 언론사로는 한국일보와 통신사가 각 12.3%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9.6%), 방송(8.6%), 중앙일보(8%), 서울신문과 조선일보(각 7%), 경향신문(6.4%) 순이었다(27쪽). 청와대에는 동아일보(25.7%) 출신이, 문공부 및 부처대변인으로는 중앙일보(16.9%)와 한국일보(15.7%), 통신사(15.7%) 출신이 많았다(28쪽).

서서도 바뀌지 않았다.⁸⁾

언론인의 정계 진출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언론 통제와 권언유착, 언론인의 전문성, 자율성 등과 관련한 논의로 강명구(1993), 김강석(2001), 임현선(2008), 조미령(2013) 등이 해당된다. 강명구의 연구에서는 언론 전문직의 형성을 중심에 두고 언론인의 정계 진출을 조망했다면, 김강석은 조선말 개화기부터 16대 국회에 이르는 방대한 시기를 아우르며 정관계로 진출한 언론인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임현선이 설문조사를 통해 정계진출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을 살펴봤다면, 조미령의 연구는 윤리적 관점에서 ‘폴리널리스트’ 일부 사례를 선별하여 논의하고 그에 대한 언론인들의 견해를 인터뷰했다.

다른 하나는 언론인의 직업 이동과 직업 만족도라는 관점에서 정계 진출 사례를 일부 논의한 연구들로, 황치성, 송상근, 그리고 정완규(2009)와 임연희(201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최근 언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고용 불안과 직업 만족도가 하락하면서 이직 의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런 전반적인 경향성 속에서 정관계로의 이직을 조망한다.⁹⁾

이처럼 언론인의 정계 진출은 한국 언론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많지 않으며, 관련 논의 대부분이 새로운 국회 구성 즈음에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에서 단편적으로 누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정도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비판이나 선언적 문제 제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역사적, 구조적 관점에서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누적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¹⁰⁾

3) 외국의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현황과 논의

한국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 보다 적실성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8) 고재열(2009, 12, 9)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폴리널리스트들과 이명박 정권의 폴리널리스트들이 다른 점은 언론인으로 재직할 때 어떤 목적을 남겼느냐는 것이라면서 ‘질적 차이’를 지적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주요 언론 기관이나 언론유관단체의 수장을 차지했던 사람 중에는 1970년대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동아투위) 출신이나 1980년 해직기자회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후배 언론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언론계의 전설이었다.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후배 언론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언론인들이 밀려난 자리에 독재에 아부했던 언론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9) 임연희(2016)는 최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의 이직에 대해 추적, 분석하면서 지역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정·관·언의 유착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10) <신문과 방송>(2008년 4월호)에서 언론인의 정계 진출에 대해 특집으로 다룬 바가 있다.

표 1. 미국 국회의원 중 언론인 출신 분포와 추이

(단위: 명)

연도	83대	86대	91대	96대	101대	106대	111대	112대	113대	114대 ^{a)}
	1953	1959	1969	1979	1989	1999	2009	2011	2013	2015
하원(435석)	36	35	39	11	17	8	9	9	11	11
민주당	18	21	22	6	9	2	5	3	5	-
공화당	18	14	17	5	8	6	4	6	6	-
하원 중 언론인 출신 %	8.3	8.0	9.0	2.5	3.9	1.8	2.1	2.1	2.5	2.5
상원(100석)	10	13	8	2	8	8	5	6	5	5
민주당	5	10	5	2	5	2	3	4	4	-
공화당	5	3	3	0	3	6	2	2	1	-
상원 중 언론인 출신 %	10.0	13.0	8.0	2.0	8.0	8.0	5.0	6.0	5.0	5.0
전체 수	46	48	47	13	25	16	14	15	16	16
전체 국회의원 중 언론인 출신 %	8.6	9.0	8.8	2.4	4.7	3.0	2.6	2.8	3.0	3.0

출처: Mann, T., Ornstein, N. J., Malbin, M., & Reynolds, M. (2017). *Vital statistics on congress*. Brookings, 22, 25, 28, 31, 34, 37쪽에서 재구성.

a) 114대의 경우 소속당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국회의원의 직전 직업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미국과 영국, 호주 정도에 불과하다.¹¹⁾

먼저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언론인 출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10% 가까운 수치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2~3% 대를 보이고 있다.¹²⁾ 2015년 114대 국회에서 언론인 출신은 하원 11명, 상원 5명 등 모두 16명이며 이는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들의 소속당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하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이 5명, 공화당 소속이 6명으로 비슷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이 4명, 공화당 소속이 1명으로, 전체 16명 가운데 민주당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영국은 언론인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출판업자와 함께 묶어 통계를 내고 있어

11) 추정컨대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이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인데, 그렇다면 많은 사회에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은 그리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매닝(Manning, 2017)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115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직업군은 공무원/정치인으로 하원 194명, 상원 44명이며, 비즈니스는 하원 179명, 상원 29명, 법조계는 하원 168명, 상원 50명, 교육계는 하원 79명, 상원 20명 등이다.

표 2. 영국의 국회의원 중 출판/언론인 출신

(단위: 명)

연도	1979	1983	1987	1992	1997	2001	2005	2010	2015
출판/언론인 출신	46	45	42	44	47	50	43	38	34
%	7.4	7.2	6.7	7.0	7.5	7.9	7.0	6.1	5.4
전체 의원 수	619	629	629	627	629	630	615	621	626

출처: Audickas, L. (2016). *Social backgrounds of MPs 1979~2015*. House of Commons Library, 7-8쪽에서 재구성.

서 정확한 언론인 출신 수를 알기 어렵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 이래 큰 변화 없이 7%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는 6.1%, 즉 621명 중 38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5년 선거에서 5.4%로 더욱 하락했다. 34명 중 보수당이 16명, 노동당이 14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스코틀랜드 국가당 소속이었다.¹³⁾ 독일은 ‘미디어(Media)’로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데, 1987년에는 1% 미만이었다가 점차 증가해서 2010년에는 621명 중 24명으로 3.9%였으나 2014년에는 하원 630명 중 미디어 관련 출신이 17명으로 2.7% 수준으로 떨어졌다.¹⁴⁾ 프랑스¹⁵⁾ 국회의원 중 ‘언론인(Journalist)’은 1988년 2.9%에서 2016년 현재 577명 중 7명으로 1.2%에 불과하다.

일본¹⁶⁾은 언론인이라는 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기자, 편집자, 캐스터, 아나운서, 저술자, 스포츠기자, 문화인, 탤런트 등을 모두 합쳐 ‘탤런트’ 직업군으로 광범위하게 분류하기 때문에 언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19대까지의 총 참의원 1459명 가운데 전체 탤런트 의원(81명)의 비율은 평균 5.6%였다(服部充裕, 2004).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언론사 출신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은 번역/정치경제평론 1명, NHK 아나운서 3명, 텔레비 아사히 뉴스 캐스터 1명, 야마가타방송 디렉터 겸 사회자 1명, 아사히 방송 아나운

13) 영국의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로는 최근까지 영국 보수당수였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을 꼽을 수 있다. 런던 시장도 역임했던 그는 <데일리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 기자 출신이다.

14) 독일은 2010년 현재 법조계가 128명으로 20.6%를 차지하며, 교수가 76명으로 12.2%에 달해 행정직 118명(19%)에 이어 세 번째 상위직종으로 나타났다(Ciaglia, 2013, p. 551).

15) 독일 사례는 고흥숙 박사, 프랑스는 김설아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김설아 박사에게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비판이 없고 대신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다고 한다.

16) 일본 자료는 심훈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서 1명, 정치 평론가 1명, 니혼테레비 해설위원 겸 뉴스캐스터 1명, 여행가 겸 르포르작가 1명, 라디오 칸토 아나운서 1명, 평론가 1명, NHK 해설위원 및 외신부 기자 1명, 사회 및 리포터 1명, 아나운서 1명 등 15명 정도였다. 전체적으로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보도관계' 국회의원을 1993년 3.6%, 2009년 2.0%로 밝히고 있다.

호주 의회에서 언론인 출신을 분석한 에링튼과 미라글리오타(Errington & Miragliotta, 2009)의 연구에 의하면, 1901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89명이 언론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0년대 초기에는 21.6%였다가 점차 낮아져서 1940년대에는 5.5%, 1970년대 중후반에는 1.6%로 낮아졌고, 2008년부터 회기가 시작된 42대 의회에서는 2.2%로 나타났다.¹⁷⁾ 이들은 언론인이 호주 전체 근로자의 0.18%라는 것을 근거로 여전히 언론인 출신이 과다재현(over-represented)되고 있다고 보는데, 언론인 출신 의원이 감소한 현상에 대해 언론인과 국회의원이라는 두 직업의 본질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먼저, 점차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공적 책임이 있는 직종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1911년 호주언론인협회가 생기면서 윤리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언론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인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여타 직업과 구별되는 규범과 기준을 갖춘 언론인들은 사회적 위상과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문직주의의 강화로 정치인보다 낫다는 직업적 전망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pp. 538-539). 또한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 즉 국회의원들의 의회 진입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것과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정치 관련 경력으로 시작한 이들이라는 점 등도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감소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 영역 역시 전문직주의가 강화되면서 언론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진입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pp. 540-541).

한국의 높은 수치에 이에 비견할 만한 국가로는 이탈리아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치아글리아(Ciaglia, 2013)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2009년 현재 95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언론인 출신이 118명으로 12.4%에 이르며 이는 법조계와 함께 가장 많은 직업군에 속한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가 한 사회의 언론-정치 관계를 설명해주는 의미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 비해 언론과 정치 간 관계가 좀 더 밀접하고 중첩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헬린과 만치니(2004/2009)의 3가지 미디어 시스템 모형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이 속한 분극적 다

17)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전직을 구분해서 3명 이상인 경우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면 2011년 이후에는 전체 226명 중 0~2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욱 낮아졌다는 것이다.

원주의는 정치 병행성이 높고 전문직화 수준이 낮으며 정치우위적 방송체제와 국가개입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105쪽). 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미디어 모형의 관점에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을 예측하기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 모형(미국, 영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수가 적지만, 분극적 다원주의 국가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기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조합주의 모형(독일)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는 사례가 독일밖에 없어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적 조합주의 모형의 공통점이 높은 전문직주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문직주의는 언론인의 정계 진출을 설명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에링튼과 미라글리오타(2009)의 전문직주의를 중심으로 한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강명구(1993)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전문직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국 언론의 전문직화가 기본적인 제도 수준에서부터 국가의 개입으로 왜곡되었다고 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실천과 윤리의 부재를 지적한다(167쪽). 박진우(2015)는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를 정치 병행성과 연결하여 설명하는데, “언론자유의 신장을 정파성 강화로 귀결시키고 이를 국가의 결합된 권력 네트워크에 의해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과 병행하고 있다”고 진단한다(192쪽).¹⁸⁾ 한국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은 다른 여러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는데, 언론의 높은 정치 병행성과 낮은 전문직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최근 언론이 산업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직업안정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한국 언론인의 정계 진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분석 범위

1) ‘폴리널리스트’ 프로필 DB 구축 과정 및 분석 범위

2012년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선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수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문헌을 통해 조사된 17대까지의 명단에 18대와 19대를 조사하여 19대까지의 명단을 확보했다. 코딩과정을 거쳐 간단한 기술통계를 거친 결과 그 수가 16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18) 박진우(2015)는 “전문직 언론인의 이념이 언론사 소유주 및 국가권력에 대하여 가지는 자율성과 대중에 대한 책임의 정당성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네론(Nerone, 2013)의 규범적 관점에서 행위자 관점, 역사구조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자들의 해석을 구한 결과,¹⁹⁾ 정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언론인은 여전히 많으며 진입장벽이 높아진 국회의원 외에 진출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과거와 달리 차장급의 비교적 젊은 기자들이 적극적이라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줄어드는 국회의원의 수 이면에 ‘잠재적’ 폴리널리스트가 많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폴리널리스트의 범주를 보다 넓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천신청자, 총선출마자, 시도지사, 청와대 비서관, 국무총리, 장차관 중 언론인 경력을 갖는 사람들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공천신청자와 총선출마자의 경우, 선거 이전 기간을 설정해 ‘구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또는 ‘기사검색 KINDS’에서 ‘공천’, ‘총선’ 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전체 명단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13대 이전 자료는 구하기가 어려웠고 14대 이후 자료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계열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전수 확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또 그 명단마저 기사마다 오차가 있어서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²⁰⁾ 국무총리와 장차관, 시도지사의 경우 위키피디아에 명단이 확보되어 있어 명단 전수에 대해 프로필 조사를 실시했지만,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 집권 초기 정부조직구성안을 찾아 프로필 조사를 했다. 이후 변경 내용은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전수분석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판단해, 이번 분석에서는 연구 범위를 국회의원 당선자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기존 연구에 언급된 명단 외에 대한민국 헌정회 사이트²¹⁾와 네이버

19)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자들이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치부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는 중견기자 3명에게 일차적인 해석을 부탁했다. 만일 당시에 정치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열망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면 이 연구는 줄어든 원인과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됐을 것이다.

20) 공천신청자의 경우 정당별 신청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총선출마자의 경우 전체명단(군소정당 포함)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공천신청자는 각 대별 집권보수여당과 제1진보야당의 폴리널리스트를 조사했고 총선출마자는 전체 출마자를 대상으로 프로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서 ‘OOO(54, 언론인), OOO(60, 신문사 간부)’와 같이 현직을 언론인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필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DB에는 넣되 ‘프로필 없음’으로 표기해 두었다. 공천 신청자의 경우 기사마다 10명 내외로 근소한 오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언론사나 기사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아마도 기사 작성 시점에 따라 추가 공천자, 출마자 등이 생겨나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신청자 명단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14대와 16대의 경우 기사 검색으로 찾지 못해 민주당 당직자에게 문의한 결과 16대 명단만을 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기본자료와 기록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선출마자 명단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고, 당선자의 전(前) 직업에 대해서도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들어서야 직업 분류를 준비 중이지만 여전히 내용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 헌정회 사이트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일이 여러 군데를 비교하며 검증을 거쳐야 했다. 16대 박용호, 18대 김세웅 등과 같이 헌정회에 누락된 국회의원도 있다.

인명검색, 위키피디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가온 언론인명 검색, 연합뉴스 프로필 검색, Pokr(Politics in Korea) 베타버전 등을 이용해 언론인 출신을 일차적으로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다.²²⁾ 명단이 확보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프로필 조사를 실시했고, 조금씩 다른 프로필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DB를 구축했다. 경력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했다.²³⁾

‘언론인 출신’을 규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모호했는데, 언론사 유형에서는 스포츠신문이나 잡지 등은 포함하는 대신 대학신문 경력은 제외했다. 직종에서도 기자 외에 사장이나 이사, 발행인 등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 논의가 주로 기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분석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을 했으나 일차적으로 외연을 너무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분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논설을 기고했거나 방송을 진행한 경우는 제외했다.²⁴⁾ 2016년 20대 총선이 실시된 이후 새로이 당선된 8명에 대해 추가 프로필 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377명의 분석대상을 확보했다. 최종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헌정회와 다음(Daum)²⁵⁾ 사이트에서 다시 한 번 인명검색을 통해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언론 관계 중심에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가장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 집단으로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 수집

22) 이들은 대부분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언론인 경력을 어디에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가 수집한 명단과 자료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23) 헌정회 등의 경력 자료 역시 본인이 제출한 것 위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사항들이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나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이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던 언론인명검색 서비스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 그나마 서비스를 접었다.

24)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류시민은 학민사 편집부장과 한겨레 독일통신원 경력이 있었지만 언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상호는 월간 〈말〉 편집위원으로 일했기에 포함했고, 노회찬도 〈매일노동뉴스〉 발행인이었기에 분석에 포함했다. 한편, 서한샘의 경우는 일채방송 회장이지만 국회의원 이후 경력이어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기우 역시 검색에서는 ‘전 언론인’으로 나오지만 국회 입문 이후 아시아뉴스통신 회장 경력 외에 다른 관련 경력은 일체 찾아볼 수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수가 기존 연구나 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언론인 출신’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5) 20대 총선 이후 다음 인물정보에서는 선거 관련 이력을 추가해서 보여주고 있다.

및 분석을 통해 관련 현상의 중단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역사적 경향성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분석 결과가 한국의 정치와 언론의 관계 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수는 시기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언론 관련 경력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관련 경력의 특성은 무엇인가?

4. 연구결과

1)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추이

〈그림 1〉에서 보듯이,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수는 제헌국회 41명(전체 200명 중 20.5%)를 시작으로, 2, 3, 4대에서 15% 미만으로 감소했다가 5대에서 16.2%로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지 못하고 6, 7, 8대에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3대를 제외하고는 9대부터 16대까지 줄곧 15% 이상을 유지한다. 특히 14, 15, 16대는 20% 내외를 넘나들며 ‘전성기’를 보이다가 17대부터 급격히 감소해 19대에 처음으로 한 자리대인 8.7%로 떨어졌고 20대에도 같은 8.7%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살펴본 외국 사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국 초기에는 독립운동과 정치적, 사회적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언론이 활용되면서 언론인의 역할은 정치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기에 정치권으로의 유입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1960년대 들어서까지도 사회가 분화,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 엘리트의 충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 고학력의 언론인은 정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군이였다. 여러 논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군사독재 시절 언론의 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인의 정치 유입을 유도하면서 언론인의 국회 진출은 계속 이어졌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에 언론인 출신의 국회 진출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언론의 권력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대 이후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수와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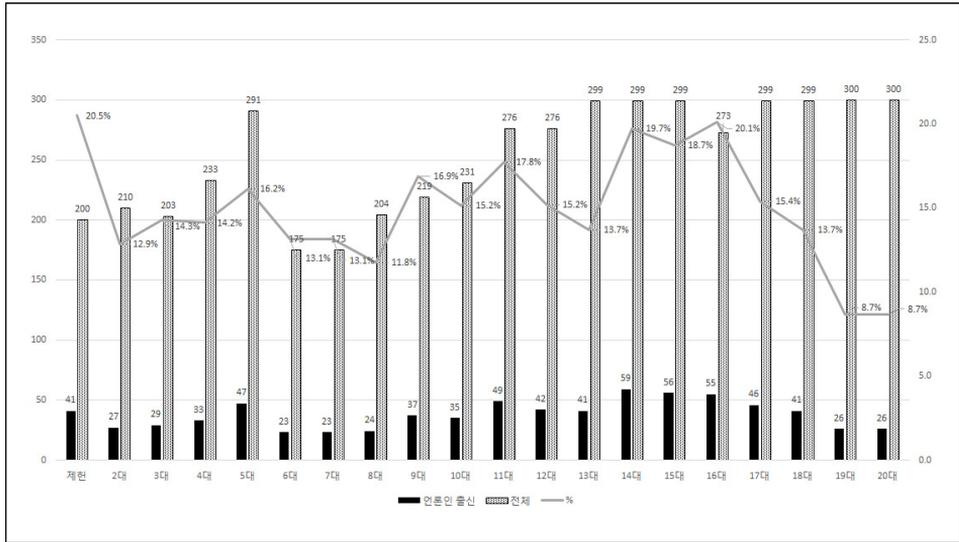


그림 1.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추이 (제헌국회~20대)

볼 수 있는가? 과연 언론인의 정치적 열망은 줄어든 것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치 환경의 변화라는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과거 언론사 국장급을 정치권에서 ‘모셔가서’ 정치 자금을 안겨 당선시키는 것이 관례였다면, 2006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언론인의 정계 진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언론 통제가 약화되면서 언론인의 정치적 효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언론과 정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언론인이 정치에 뜻이 있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자리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고 공천부터 경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공천 신청부터 쉽게 통과하기 어려워졌으며 공천을 통과하더라도 총선에서도 낙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도 최소 42명 이상의 ‘새로운’ 언론인들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 단계와 선거 단계를 통과한 이는 8명에 불과했다. 즉, ‘성공한’ 폴리널리스트의 수가 줄었을 뿐이라는 것이다.²⁶⁾

26) 이명박 정권에서만도 국회의원 숫자와 별개로 최소한 88명의 ‘폴리널리스트’가 활동했다. 고재열(2009, 12, 9)의 분석에 의하면, 후보 캠프 언론특보 39인, 언론특보 외 MB캠프 관여자 12인, 정권 출범 후 합류한 언론인 24인, 한나라당 공천신청 언론인 13인 등인데, 이 중 9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언론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여명의 언론인들이 정권의 도움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 조선일보 KBS 동아일보가 각각 13명 12명 11명으로 선두권이고 SBS가 7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MBC

2)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출신지역, 출신고, 학력, 출신대학 및 전공

(1) 성별과 출신지역

먼저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377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359명(95.2%)로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18명(4.8%)에 불과했다. 한국 언론사의 남성중심성, 한국 정치의 남성중심성을 생각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이들의 출신지역은 전남이 50명, 경북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 경남, 경기, 전북 순이었다. 이를 권역별로 묶어 보면, 서울이 38명, 인천/경기가 36명, 대전/충청이 50명, 부산/울산/경남이 51명, 대구/경북이 57명, 광주/전남이 59명, 전북이 33명, 강원이 23명, 이북이 21명이었다.

이를 다시 정권별로 묶어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출신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부산/경남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대전/충청이 20명 안팎으로 별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들어서서는 유신 이후 대구/경북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구/경북의 강세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광주/전남이 가장 많았는데 전북까지 하면 16명으로 경상도 11명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11명씩으로 같아지면서 비교적 고른 지역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치러진 두 번의 선거에서는 서울과 대전/충청, 부산/경남, 광주/전남이 10~11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대구/경북은 인천/경기보다 적은 7명에 그쳤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전/충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권역이 2~4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에서는 출신지역이 다변화되면서 특정 지역 쏠림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출신고교

이들의 출신고교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 274명 가운데 경기고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고가 12명, 경북고와 경남고, 경북고가 각 9명, 휘문고와 광주제일고, 대전고가 각 6명이

는 모두 6명씩이고 진보언론으로 꼽히는 경향신문 출신도 4명이나 있다. 이들 폴리널리스트들이 간 곳을 살펴보면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으로 26명이다. 청와대도 17명이나 된다. 그 밖에 정부부처로 간 사람이 8명이고 민간기업에도 5명이나 갔다.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은 5명뿐이었다. 이명박정부 폴리널리스트의 재취업률은 94%를 넘는다고 할 수 있다(공천 탈락자 제외).”

표 4. 출신지역 * 정권

(단위: 명)

	이승만	장면	박정희 (3공)	박정희 (유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합계 (%)
	제헌~ 4대	5대	6~ 8대	9~10 대	11~ 12대	13~ 14대	15대	16대	17대	18~ 19대 ²⁷⁾	20대	
서울	8	2	7	7	3	5	9	6	10	11	4	38 (10.1)
인천/경기	10	4	4	5	7	11	7	7	4	7	3	36 (9.5)
대전/충청	20	8	13	10	9	13	7	9	4	10	6	50 (13.3)
부산/울산/경남	27	8	8	7	13	16	6	6	7	10	3	51 (13.5)
대구/경북	19	5	9	16	22	22	8	5	4	6	2	57 (15.1)
광주/전남	21	10	10	8	13	12	9	10	8	10	3	59 (15.6)
전북	11	3	4	5	10	11	5	6	3	6	3	33 (8.8)
강원	8	5	7	4	6	6	1	1	3	4	2	23 (6.1)
제주	1	0	0	0	0	0	0	0	0	0	0	1 (0.3)
이북	4	2	6	8	6	2	3	1	1	1	0	21 (5.6)
해외	0	0	0	1	2	0	1	4	2	2	0	4 (1.1)
미상	1	0	2	1	0	2	0	0	0	0	0	4 (1.1)
전체	130	47	70	72	91	100	56	55	46	67	26	377/760

었다. 출신고교를 지역으로 묶어서 살펴봤을 때, 서울이 93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와 전북이 각 27명, 부산이 24명, 광주 19명, 전남 13명 순이었다. 이는 상당수가 고등학교부터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나가서 수학했음을 알 수 있다.

출신고교의 분포는 출신지역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에서 고교를 다닌 경우가 대체로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구/경북은 유신체제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까지 꾸준히 유지하다가 김대중 정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부산/경남은 전두환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해서 노태우 정권 때 정점을 찍고 점차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두환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 더욱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전북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전체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수의 증가세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27)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천 등 권력의 행사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표 5. 출신고교 지역 * 국회

(단위: 명)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체 (%)						
	제헌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서울	14	5	3	3	8	1	2	5	7	9	12	14	11	20	21	15	22	15	12	11	93 (24.7)											
인천/경기	2	0	0	0	1	0	0	0	1	1	1	1	0	1	3	6	2	2	0	1	11 (2.9)											
부산/경남	1	4	2	2	2	1	2	2	2	3	7	7	6	10	6	6	5	5	2	1	34 (9.0)											
대구/경북	1	1	3	4	1	1	1	0	5	5	6	4	7	7	7	5	4	2	3	2	34 (9.0)											
대전/충청	1	0	0	1	2	2	2	3	1	1	1	2	2	2	2	5	1	4	1	3	17 (4.5)											
광주/전남	1	0	2	4	5	0	0	4	2	2	5	3	5	6	8	8	6	4	4	2	32 (8.5)											
전북	1	1	2	1	3	1	0	0	1	4	5	5	6	8	7	6	3	4	1	2	27 (7.2)											
강원	0	0	0	0	1	1	0	0	1	1	0	0	0	1	0	0	1	2	0	0	6 (1.6)											
제주	0	0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5)											
이북	1	0	1	2	1	1	1	1	2	0	1	1	0	0	0	0	0	0	0	0	7 (1.9)											
일본/미국/해외	3	2	1	2	3	2	2	0	1	1	0	1	0	0	0	0	0	1	0	0	11 (2.9)											
미상/해당없음	16	14	14	14	20	12	12	9	15	8	11	4	4	4	2	4	2	2	3	4	103 (27.3)											
전체	41	27	29	33	47	23	23	24	37	35	49	42	41	59	56	55	46	41	26	26	377/160											

(3) 학력 및 출신대학

학력이 확인된 359명 가운데 18명을 제외한 341명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대학 졸업이 145명, 석사가 110명, 박사도 84명²⁸⁾에 이르렀다. 출신대학으로는 서울대가 33%에 이르는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소재대학 54명, 고려대 41명, 연세대 18명이었다. 그 밖에 경희대(9명), 성균관대와 한국외대, 이화여대(8명), 중앙대(7명), 동국대(6명), 건국대(5명) 등이었고, 미국소재대학은 8명, 중국소재대학도 4명이었다. <표 6>에서 보듯이, 일본소재대학 출신은 제헌국회 17명을 시작으로 5대까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지만 6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8대를 전후해서 서울대 출신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의 축이 이동하는 양상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4개 학교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집중화되는데, 19대와 20대에서는 거의 80%에 이르면서, 언론인의 정계 진출에 대학이라는 연고자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²⁹⁾

한편 석사학위를 받은 학교는 서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서울대가 41명, 고려대가 33명, 연세대가 22명이었고, 그 밖에 중앙대 7명, 서강대와 동국대가 4명, 이화여대와 한양대, 건국대가 각 3명이었다. 지방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8명에 그쳤다. 미국대학도 30명이나 된 반면 일본대학은 4명, 유럽대학은 1명에 불과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이는 모두 86명으로, 미국대학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대학도 19명이나 되었다. 한양대가 6명, 경희대가 5명이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각각 2, 3, 4명에 불과했다.

(4) 전공 분야

학부전공을 살펴보면 정치학/정치외교학이 82명(21.8%)으로 가장 많았고, 법학이 69명(18.3%), 어문계열(39명)과 상경(27명)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정치학/정치외교학과 출신과 법학과 출신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초기에는 법학 전공자가 가장 많았으나 유신체제인 9대부터 정치/외교학 전공자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정치/외교학의 강세는 20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법학 전공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28) 명예박사 포함.

29) 가장 많은 3개 대학의 주소속당계열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 99명 중 64명(64.6%)이 보수여당계열이며 연세대는 18명 중 13명(72.2%), 고려대는 41명 중 29명(70.7%)으로 연세대의 보수성향이 가장 높았다.

표 6. 출신대학교 * 국회

(단위: 명)

	이승만				장면		박정희						진두환		노태우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체 (%)						
	체현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22대	23대	24대		25대	26대				
서울대	0	2	1	2	5	2	4	6	9	11	19	21	12	21	21	25	17	16	8	8	21	21	12	21	21	25	17	16	8	8	99 (26.3)
연세대	1	1	1	1	1	2	1	1	1	3	6	5	1	5	4	4	5	3	5	4	4	4	1	5	4	4	5	3	5	4	18 (4.8)
고려대	2	0	0	1	0	1	3	4	7	6	4	5	6	11	8	8	8	7	3	4	8	8	6	11	8	8	7	3	4	4	41 (10.9)
성균관대	0	0	0	0	0	0	0	0	0	0	2	1	1	2	0	1	4	3	4	4	0	1	1	2	0	1	4	3	4	4	8 (2.1)
한양대	0	0	0	0	0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1	0	1	0	1	0	0	0	0	0	3 (0.8)
중앙대	0	0	0	0	0	0	0	1	0	0	1	1	3	3	5	4	2	1	2	2	5	4	3	3	5	4	2	1	2	2	7 (1.9)
경희대	0	0	0	0	0	0	0	0	0	0	1	2	1	2	4	5	2	1	1	1	4	5	2	2	4	5	2	1	1	1	9 (2.4)
한국외대	0	0	0	0	0	0	0	0	0	0	1	0	1	3	3	2	2	2	0	0	3	2	1	3	3	2	2	0	0	0	8 (2.1)
동국대	0	0	1	1	1	1	0	0	1	0	2	0	0	1	1	0	0	0	0	0	1	0	1	1	1	0	0	0	0	0	6 (1.6)
이화여대	0	0	0	0	0	1	1	0	2	1	1	0	0	1	1	0	2	1	2	1	1	0	0	1	1	0	2	2	1	0	8 (2.1)
간국대	0	0	1	1	1	0	0	1	0	0	0	0	1	2	1	2	1	0	1	0	1	1	0	1	2	1	0	1	0	0	6 (1.6)
단국대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0	0	0	0	1	1	1	1	1	1	0	0	0	0	3 (0.8)
기타서울지역	0	0	0	0	0	1	1	0	0	0	1	0	0	1	0	0	1	3	0	1	1	0	0	0	1	0	1	3	0	1	8 (2.1)
경북대	0	0	0	0	0	0	1	1	1	2	1	0	1	1	0	0	0	0	0	0	1	0	1	1	0	0	0	0	0	0	2 (0.5)
전북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2 (0.5)
전남대	0	0	0	0	0	0	1	0	0	1	1	1	2	1	0	0	0	0	0	0	1	0	2	1	0	0	0	0	0	0	4 (1.1)
강원대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2 (0.5)
기타지방대학	3	2	2	2	1	0	1	2	3	1	0	2	5	2	3	0	1	0	1	0	3	0	2	5	2	3	0	1	0	1	20 (5.3)
일본대학	18	14	10	15	15	8	6	4	7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4 (14.3)
미국/유럽대학	1	1	2	2	3	2	1	0	0	1	1	1	0	0	0	1	1	1	0	0	0	0	1	0	0	1	1	1	0	0	9 (2.4)
중국대학	0	0	1	1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1.1)
해당없음	6	2	5	2	6	2	1	2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4.8)
확인불가	9	5	5	5	13	3	2	2	3	6	4	3	2	2	1	1	0	0	0	0	1	1	2	2	2	1	0	0	0	0	38 (10.1)
전체	41	27	29	33	47	23	23	24	37	35	49	42	41	59	56	55	46	41	26	26	56	55	41	59	56	55	46	41	26	26	377/760

주: 2명 이상인 대학만을 제시했으며, 기타서울지역에 서강대, 숙명여대, 방통대 각 1명 포함. 기타지방대학에 부산대 1명 포함. 미국/유럽대학에 유럽대학 1명 포함.

표 7. 학부 전공 * 국회

(단위: 명)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체 (%)				
	제헌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1	2	3																								
정치/정치외교	6	3	3	1	2	4	3	4	10	14	19	13	17	25	22	21	12	8	6	9	82 (21.8)							
기타사회계열	1	3	1	2	3	2	2	1	1	1	2	6	2	3	4	5	5	6	3	3	26 (6.9)							
법학	9	7	7	8	9	3	4	4	6	5	10	11	11	11	6	7	4	4	3	2	69 (18.3)							
상경	2	1	2	5	4	2	4	4	4	1	2	0	0	5	5	3	2	2	2	2	27 (7.2)							
어문계열	1	1	0	1	1	2	4	2	3	3	6	4	3	6	8	7	10	6	5	4	39 (10.3)							
교육/사범계열	0	0	0	0	0	2	1	0	1	0	0	0	0	3	2	4	4	2	1	1	10 (2.7)							
이공계열 ^{하)}	1	1	1	1	0	0	0	0	0	1	2	1	1	1	2	0	3	2	2	2	9 (2.4)							
예체능	1	2	0	1	2	0	0	1	1	1	0	0	0	0	0	1	0	2	0	0	7 (1.9)							
기타/해당 없음	9	3	6	4	7	2	1	2	2	1	3	0	0	0	0	0	1	1	0	0	25 (6.6)							
확인불가	11	6	9	10	19	6	4	6	9	8	5	7	7	5	7	7	5	8	4	3	83 (22.0)							
전체	41	27	29	33	47	23	23	24	37	35	49	42	41	59	56	55	46	41	26	26	377/760							

하) 의대 포함.

것처럼, 최근에는 정치학/정치외교학을 제외하면 전공이 대체로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외교학 전공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높으며 또한 선후배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³⁰⁾ 또한 2000년대 이후에 교육/사범계열과 이공계열 출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 인문·사회계열 중심이었던 언론인의 전공분야가 그만큼 다변화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언론 관련 경력: 출신언론사, 직종, 직급³¹⁾

(1) 출신언론사

이들이 언론인 경력을 최초로 시작한 언론사를 살펴보면 지방신문이 63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가 52명(13.8%), 조선일보가 34명(9.0%), 한국일보가 22명(5.9%), 중앙일보가 16명(4.3%), 경향신문이 13명(3.5%)이었다. 중앙일간지나 경제신문이 아닌 신문에서 시작한 경우도 55명(14.6%)으로 나타났다. MBC는 17명(4.5%), KBS는 14명(3.7%)였고, SBS는 2명(0.5%)이었다. 동화/합동/동양통신 출신도 15명(4.0%)이 있었고, 잡지 출신은 13명(3.5%)이었다.

최종언론사, 즉 정치권에 진출하기 직전에 근무하던 언론사의 분포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신문이 60명(15.9%), 지방신문이 59명(15.6%)으로 많았다.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47명, 조선일보가 29명, 경향신문 20명, 중앙일보 17명, 한국일보 15명, 서울신문 13명, 한겨레 6명 등이다. 방송사는 KBS와 MBC가 각 20명으로 같았고 SBS는 7명이었다. 동아일보는 김영삼 정권 당시인 15대에서 11명이나 국회에 들어갔고, 조선일보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방송사 출신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부터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15대부터 18대까지 꾸준히 5~6명이었다가 이후 1명으로 감소한 반면, MBC는 16대부터 4명 이상으로 늘어나 20대에서는 가장 많은 9명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30) 정치/외교학 전공자의 경우 82명 가운데 보수여당계열이 51명(62.2%), 진보야당계열이 28명, 무소속이 3명으로 보수여당 성향이 강한 편이다.

31) 정치부 경력과 특파원 경력 등도 조사했으나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워낙 많아 자료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석하지 않았다.

표 8. 최종언론사 * 국회

(단위: 명)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체 (%)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제헌																																						
조선일보	6	2	2	2	5	2	0	1	2	3	4	3	4	3	5	6	6	3	2	6	3	2	4	1	2	4	1	2	3	2	4	1	2	2	2	29 (7.7)			
중앙일보	1	0	0	0	2	0	0	1	1	1	5	4	3	3	3	3	3	3	3	3	5	4	3	4	3	4	3	5	4	3	4	3	4	2	2	17 (4.5)			
동아일보	13	4	6	7	11	4	3	1	1	5	6	5	4	7	4	7	11	8	6	11	8	6	3	1	0	6	3	1	0	1	0	0	0	0	0	47 (12.5)			
경향신문	2	2	1	1	3	2	3	2	4	5	4	4	4	2	2	2	1	2	0	1	2	0	1	0	0	0	1	0	0	0	0	0	0	0	0	20 (5.3)			
한겨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3	2	0	0	0	2	0	0	0	0	0	0	0	0	6 (1.6)			
문화일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2 (5.3)			
한국일보	0	0	0	0	0	0	1	1	0	1	5	4	3	3	4	5	2	3	2	2	3	2	0	1	2	2	0	1	1	1	1	1	1	1	1	15 (4.0)			
서울신문	0	0	0	0	0	2	2	2	2	4	3	3	3	4	1	0	1	0	1	1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3.4)			
기타신문	9	9	4	6	11	5	4	7	10	6	4	2	2	7	5	8	5	8	4	7	5	8	4	4	4	4	4	4	4	4	4	4	4	4	4	62 (16.4)			
지방신문	3	4	9	14	9	2	3	8	10	5	11	10	10	10	10	10	7	5	4	10	7	5	4	3	3	3	3	3	3	3	3	3	3	3	3	59 (15.6)			
KBS	0	0	1	1	1	0	1	0	1	1	1	1	1	1	1	1	3	6	5	6	5	6	6	1	1	1	1	1	1	1	1	1	1	1	1	1	20 (5.3)		
MBC	0	1	1	0	0	0	1	0	1	1	0	0	2	2	2	2	2	4	4	2	2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20 (5.3)		
SB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3	3	2	1	1	1	1	1	1	1	1	1	1	1	1	7 (1.9)		
기타방송사	0	0	0	0	1	0	0	0	1	1	1	0	1	1	1	1	1	1	0	2	1	1	0	1	0	1	0	1	0	1	0	1	0	0	0	7 (1.9)			
연합통신/YT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3	3	2	1	1	1	1	1	1	1	1	1	1	1	3 (0.8)			
잡지/특수 전문지	2	0	0	0	1	0	1	0	1	0	0	1	0	1	0	1	0	3	4	3	3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4.0)			
동화/합동/동양	0	1	0	1	0	2	2	1	1	0	1	0	1	0	1	1	1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9 (2.4)			
기타	4	4	5	2	2	3	2	1	1	2	3	4	4	3	2	1	2	1	1	3	2	1	1	0	1	1	1	1	1	1	1	1	1	1	1	23 (6.1)			
확인불가	1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8)			
전체	41	27	29	33	47	23	23	24	37	35	49	42	41	59	56	55	46	41	26	56	55	46	41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377760		

주: 나중에 KBS나 MBC, 중앙일보 등의 경력이 있고 이전 언론사 경력이 누락된 경우 창사 이전 경력으로 나타난다. 기타신문에는 세계일보와 한국경제 각 1명 포함.

(2) 직종 및 직급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자가 238명(논설위원 31명 포함)³²⁾으로 63.3%였으며, 이사/사장/발행인도 89명(23.7%)나 되었다. 아나운서가 7명, PD는 1명에 그쳤다. <표 9>에서 보듯이 이사/사장의 국회 진출은 초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10대 국회부터 감소하긴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아나운서의 정계 진출이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기자 집중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사와 출입처를 매개로 하는 정계 진출 경로가 지속적인 효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로 진출할 당시 이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사장/이사/발행인이 115명(30.6%)로 가장 많았고 논설/해설위원이 60명(16.0%), 국장/본부장이 49명(13.0%), 기자³³⁾가 39명(10.4%), 부장이 27명(7.2%)이었다. 논설주간에서 옮기는 경우도 13명(3.4%)이었는데, 전체의 20% 가량이 논설실에서 국회로 입성하는 것이다. 과거 사장/이사/발행인이나 국장/본부장이 많았던 것에 비해 19대부터는 부국장이나 부장급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계로 진출하는 언론인의 직급과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관련 경력의 특성: 국회의원 경력, 정치활동 유형, 소속 당 계열, 당선유형 및 지역구, 국회 진출 직전 활동 분야 및 국회의원 경력 이후 진출 분야

(1) 국회의원 경력

다음으로는 정치 관련 경력 중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살펴보았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4명이 초선에 그쳤지만 2선이 84명, 3선 40명, 4선 32명, 5선 18명, 6선 4명, 7선 3명, 8선도 2명이 있었다.³⁴⁾

32) 이 가운데 앵커를 겸한 경우는 최소한 5명으로 나타났다.

33) 경력 자료에 구체적인 직급 대신 '기자'로 적힌 경우가 꽤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4) 이들의 상세한 명단은 부록 참조.

표 11. 국회의원 경력 * 국회

(단위: 명)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체 (%)
	제헌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11대	12대	13대	14대															
1선	27	12	7	6	15	6	6	4	15	5	12	5	5	9	9	9	7	14	7	15	9	13	5	8	194	(51.5)			
2선	5	5	8	6	11	5	5	7	11	8	11	11	8	12	8	12	14	10	14	10	12	10	5	4	84	(22.3)			
3선	2	4	6	7	8	3	1	1	0	4	9	10	6	14	6	14	11	8	11	8	9	4	7	6	40	(10.6)			
4선	5	3	4	7	6	3	4	4	5	6	6	7	8	10	11	10	11	11	11	10	10	8	5	5	32	(8.5)			
5선	2	2	3	5	6	3	4	3	2	6	4	5	6	8	8	8	8	8	8	8	5	5	3	2	18	(4.8)			
6선	0	1	0	1	1	1	1	2	1	2	3	2	2	2	2	2	1	2	1	2	1	1	0	0	4	(1.1)			
7선	0	0	1	1	0	1	1	3	3	3	2	1	1	2	1	2	2	0	2	0	0	0	0	0	3	(0.8)			
8선	0	0	0	0	0	1	1	0	0	1	2	1	1	2	1	2	2	2	2	2	1	1	1	1	2	(0.6)			
전체	41	27	29	33	47	23	23	24	37	35	49	42	41	59	56	55	46	41	26	26	377	760							

주: 이 표는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을 당선횟수에 따라 구분한 후 국회별로 배치한 것으로서 해당국회당시의 경력이나 이름을 유의해야 한다. 즉, 20대의 경우 초선의원이 7명, 재선의원이 4명, 3선의원이 6명이라는 식이다.

표 12. 정치활동 유형

(단위: 명)

	첫 번째 경력	두 번째 경력	세 번째 경력	네 번째 경력	전체	영역별
국회의원	365	7	5		377	377
대통령/총리/부총리	1	4			5	72
장관		37	8		45	
차관	1	6	5		12	
시도지사	1	5	2	2	10	
청와대비서관/보좌관	3	14	10		27	30
청와대대변인	1	2			3	
정당대표/총재/최고위원		19	20	2	41	247
정당비서관/보좌관/특보	1	24	11		36	
정당대변인		41	17	1	59	
정당기타	4	71	36		111	
총선출마(낙선)		25	19	1	45	60
공천신청(실패)		5	10		15	
기타		5	10		15	15
전체	377	265	153	5	801	801

주: 이는 자료상의 배열 순서에 의한 것일 뿐, 시간적 순서와 관계가 없는 경우가 제법 있다.

(2) 정치활동 유형

이들의 정치활동 유형을 살펴보았더니,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총리, 부총리를 역임한 경우가 5명, 장관 45명, 차관 12명, 시도지사 9명 등 행정관료가 71명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18명, 대변인이 12명으로 청와대 관련직이 30명이었다. 정당대표나 총재, 최고위원을 역임한 경우는 42명, 정당비서관이나 보좌관이 37명, 정당 대변인이 59명 등으로 정당 관련직이 248명이었다.³⁵⁾ 공천을 신청했으나 떨어진 경우가 14명,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우가 45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만으로 그친 경우, 여기서 총선 출마와 공천 신청은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³⁶⁾ 이러한 분석에 따라

35) 이러한 분석에 의거해 ‘폴리널리스트’의 유형을 국회형, 행정관료형, 청와대형, 정당형, 다분야형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다. 선출직형과 임명직형 등의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정치 입문 경로에 따라 직진형과 우회형으로 나뉘볼 수도 있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각각의 경력을 가진 이들을 모두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총리/부총리(5명): 궤상훈, 윤보선, 이승만, 최경환, 허정
- 장관(45명): 고재필, 김덕룡, 김동성, 김명자, 김영선, 김우석, 김우평, 김원길, 김윤환, 김준연, 김중위, 김한길, 남재희, 맹형규, 박찬현, 서청원, 손주환, 신경식, 신낙균, 신상우, 오세응, 안재홍, 유용태, 윤보선, 윤여준, 윤주영, 이민섭, 이상철, 이용희, 이원우, 이자현, 이진희, 이찬우, 장기영, 장석윤, 정동채, 정상천, 조한백, 주요한, 최경환, 최병렬, 최영철, 최재욱, 허정, 홍사덕
- 차관(12명): 강용식, 박병배, 박선숙, 박찬현, 박현태, 신중식, 이경재, 이원우, 장석윤, 정재호, 조남조, 최세경
- 시도지사(10명): 신도성, 이성득, 박준영, 이환의, 정상천, 정현모, 조남조, 최문순, 최병렬, 허정
- 청와대 계열(30명): 강인섭, 강용식, 김경재, 김길홍, 김남, 김동성, 김용태, 김한길, 김형오, 김효재, 문학진, 민경욱, 박선숙, 박준영, 박형준, 선우연, 손주환, 신도성, 신범식, 심용택, 염길정, 윤여준, 윤주영, 이경재, 이용희, 이자현, 임방현, 최병렬, 최영철, 최재욱
- 정당 고위직(41명): 강삼재, 고정훈, 궤상훈, 권영길, 김영배, 김원기, 김윤환, 김준연, 김진구, 김창수2, 남경필, 노회찬, 박대출, 박병배, 박순천, 박영선, 변웅전, 서동진, 신경민, 신낙균, 심재철, 안재홍, 양순직, 이상호, 유옥우, 유용태, 윤원호, 윤치영, 이규택, 이남준, 이만섭, 이협, 이부영, 이환의, 이훈구, 장준하, 정동영, 정상천, 최병렬, 허정, 홍사덕

(3) 주소속당 계열

한편,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소속당 계열을 살펴본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여당계열이 절반에 가까운 185명(49.1%), 진보야당계열이 119명(31.6%), 무소속이 47명(12.5%) 선이었다. 초기에는 무소속이 많다가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보수여당계열이 많아지는데, 특히 9대 유신체제부터 민주화 이전까지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3대에서 진보야당계열이 대폭 증가했지만 1990년 3당 합당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보수여당계열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권에서 진

36) 공천을 받지 못했으면 '공천 신청'으로, 총선에서 낙선했으면 '총선 출마'로 코딩했다.

표 13.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의 주소속당계열

(단위: 명)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체 (%)				
	제헌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보수여당	14	7	11	11	3	10	13	10	26	21	30	26	20	32	28	27	21	23	12	8	185(49.1)				
진보야당	7	5	5	8	16	5	3	6	4	6	9	7	16	17	18	21	23	16	14	17	119(31.6)				
무소속	15	13	8	9	17	2	3	3	2	2	2	3	1	0	0	0	0	0	0	0	47(12.5)				
보수여당→ 진보야당	1	0	2	1	3	2	2	0	0	1	1	1	1	4	4	2	0	0	0	0	8(2.1)				
진보야당→ 보수여당	2	1	3	2	5	3	1	4	4	5	7	5	3	6	6	5	2	2	0	1	15(4.0)				
기타	2	1	0	2	3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3(0.8)				
전체	41	27	29	33	47	23	23	24	37	35	49	42	41	59	56	55	46	41	26	26	377/760				

표 14. 소속당계열 경로

	경로	빈도 (%)	합계 (%)
보수여당계열 ^{a)}	보수여당	185 (49.1)	202 (53.6)
	야 → 여	15 (4.0)	
	무 → 여	2 (0.5)	
진보야당계열 ^{b)}	진보야당	119 (31.6)	135 (35.8)
	여 → 야	8 (2.1)	
	무 → 야	8 (2.1)	
무소속	무소속	37 (9.8)	37 (9.8)
기타 ^{c)}		3 (0.8)	3 (0.8)
합계		377 (100.0)	377 (100.0)

a) 민주공화당과 민자당, 한나라당 계열을 보수여당계열로 코딩했다.

b) 민주당 계열을 진보야당으로 코딩했는데, 민한당과 자민련의 경우 성향은 보수적이지만 당시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진보야당계열로 코딩했다.

c) 전남 화순에서 1석을 낸 대성회 조국현, 무소속과 보수여당, 진보야당을 오갔던 박찬현, 서범석 등 3명이다.

보야당계열이 증가하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처음으로 보수여당보다 진보야당계열이 많아진다. 18대에서 진보야당계열이 상당수 감소했지만, 19대와 20대에서 보수여당계열의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진보야당계열이 더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으로 국회에 진입했던 47명 가운데 2명(이교선, 최창섭)은 추후 보수여당 계열로, 8명(곽상훈, 김동욱, 김의택, 박병배, 이상철, 조한백, 최국현, 최치환)은 진보야당 계열로 소속을 변경했다. 이들 외에도 보수여당에서 진보야당으로 바꾼 경우는 5명, 진보야당에서 보수여당으로 바꾼 경우는 15명에 달했는데, 최종적으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절반이 넘는 202명(53.6%)가 보수여당계열, 135명(35.8%)이 진보야당계열로,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여당성향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집권기간이 길었음을 감안할 때 언론인들의 정계 진출은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야를 넘나든 경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3당 합당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다. 서범석의 경우는 무소속에서 민주당을 거쳐 민정당에 갔다가 다시 신민당에 갔으며, 신상우는 신민당에서 민한당을 거쳐 통일민주당에서 또 민자당으로 바꿨다. 보수여당에서 진보야당으로 바꾼 경우는 김인곤, 김진구, 성원경, 양순직, 유용

표 15. 출신지역 * 소속당계열 경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보수여당계열	24	20	1	0	8	13	3	11	16	5	1
진보야당계열	9	6	1	5	5	8	3	19	22	8	1
무소속	2	5	0	2	0	3	2	2	9	2	0
여 → 야	0	1	0	0	1	2	1	0	1	0	0
야 → 여	2	2	0	0	0	3	0	1	1	0	0
기타	1	0	0	0	0	0	0	0	1	1	0
전체	38	34	2	7	14	29	9	33	50	16	2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	이북	해외	미상	전체
보수여당계열	13	7	35	11	0	13	2	2	185 (49.1)
진보야당계열	10	1	4	7	0	6	2	2	119 (31.6)
무소속	8	0	6	4	1	1	0	0	47 (12.5)
여 → 야	0	1	0	1	0	0	0	0	8 (2.1)
야 → 여	2	0	3	0	0	1	0	0	15 (4.0)
기타	0	0	0	0	0	0	0	0	3 (0.8)
전체	33	9	48	23	1	21	4	4	377 (100.0)

주: 기댓값에 못 미치는 셀이 많아서인지 $p = .097$ 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이궁규, 이만섭, 정상천 등이며, 진보야당에서 보수여당으로 바꾼 경우는 강삼재, 김원길, 류진, 박권흠, 신상우, 신상초, 오세웅, 유옥우, 윤보선, 윤치영, 이상돈, 이규택, 정진석, 채문식, 홍사덕 등이다.

한편 출신지역에 따라 주소속당계열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북(79.2%), 대구(77.8%), 서울(68.4%), 이북(66.7%), 경기(64.7%) 출신의 보수여당 성향이 강했다. 진보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는 대전(71.4%), 전북(57.6%), 전남(46%), 부산(50%) 등이었다.

출신언론사별로 주소속당계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더니, 조선일보는 29명 중 19명, 중앙일보는 17명 중 10명, 동아일보는 47명 중 21명, 경향신문은 20명 중 14명, KBS는 20명 중 14명, MBC는 20명 중 9명, SBS는 7명 전원, YTN 역시 2명 모두가 보수여당계열이었다. 한겨레는 6명 전원이 진보야당계열로 나타났다. 지방신문의 경우도 59명 중 25명, 잡지 출신은 12명 중 8명이 진보야당계열로 나타났다.³⁷⁾

(4) 당선유형 및 지역구

이들의 당선유형과 지역구를 살펴보았더니 비례대표/전국구로 직접 경선에 나서지 않고 당선된 경우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³⁸⁾ 특히 전국구 당선이 94건에 이른다. 이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언론인을 데려다가 손쉽게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사례가 흔했음을 보여준다.³⁹⁾ 지역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55건, 전남이 36건, 경기도가 34건, 경남이 30건, 경북이 26건, 전북이 24건, 충남이 23건, 강원이 18건, 대구가 14건, 부산이 12건, 대전과 인천, 광주가 각 7건, 충북이 3건 등으로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5) 국회 진출 직전 영역 및 국회의원 경력 이후 진출 영역

이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직전에 종사했던 영역을 분석해본 결과, 언론사에서 바로 옮긴 경우가 214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36명(9.6%), 정당 31명(8.2%), 연구소/시민단체 23명(6.1%), 학계 22명(5.9%), 정부단체/공기업 15명(4.0%), 기타 15명(4.0%), 법조계 2명(0.5%)으로 나타났다. 언론사에서 국회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속했던 언론사뿐 아니라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회의원 경력 이후의 진출영역을 살펴보았더니, 82명(21.8%)은 재선에 성공하는 등 정치인 경력을 이어가고 있었고 언론사에 다시 돌아온 경우와 정당에 남아 있는 경우가 각 44명(11.7%), 민간기업으로 옮겨간 경우가 30명(8.0%), 학계가 28명(7.4%), 정부단체/공기업이 27명(7.2%), 연구소/시민단체가 18명(4.8%), 출판/문화계가 4명(1.1%), 법조계가 3명(0.8%) 등이었다. 이들이 다시 언론계로 돌아오는 것은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기에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경력을 거쳐 언론계로 복귀한 경우까지 하면 모두 49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대개 사장이나 이사 등으로 언론계에 복귀하는데, 비록 직접 기사를 작성하거나 데스크을 하지는 않는다 해도 임원으로서 보도의 방향이나 편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37) 그러나 출신언론사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8) 다선인 경우 3선까지만으로 제한해서 코딩했기에 모든 경우를 반영한 분석은 아니다.

39) 전국구는 6대부터, 비례대표는 17대부터 시행되었다.

5. 논의 및 제언

“저널리스트는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쉛슨(Schudson, 2008, p. 60)의 명제는 언론인의 역할 범위와 윤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저널리즘은 정치의 한 요소일지언정, 언론인은 비판적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며 직접적인 정치 행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계 인사의 정치권 진출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정치 영역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언론인 출신 정치인을 뜻하는 ‘폴리널리스트’라는 용어는 저널리즘적 가치에 대한 배반을 상징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들 폴리널리스트가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와 언론의 유착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로 자리해왔던 역사적 경험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과거 정통성이 약한 정권들은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했고, 일부 언론인이 정관계 진출을 댓가로 그러한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정치권력의 도구적 존재, 즉 대리인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이 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폴리널리스트는 언론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언론의 권력화를 통해 저널리즘 자체를 왜곡시키기도 하며, 나아가 언론인의 전문직화를 방해하고 직업 정체성과 직업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폴리널리스트는 차라리 정직한 사람이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의 정치적 정체를 커밍아웃하는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다른 유형의 폴리널리스트가 더 문제다. ‘암약하는 언론인’이다. 중립인 척하면서 사실은 정파성이 듬뿍 묻은 기사와 칼럼을 생산하는 언론인이다. (김종배, 2008)

폴리널리스트가 차라리 더 정직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수용자들은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언론의 정파성을 지적한다. 언론이 정파성을 무기로 사실보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프레임을 통해 현실을 왜곡, 조작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로써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그러한 갈등 사이에서 생겨나는 정치적 이익을 취해왔던 이력을 부정하기 어렵다.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언론이 정치의 도구로 기능했다면 노태우 정부 이래 한국 언론

은 그 자체가 거대한 권력으로 변환되었다(강준만, 2000). 권력화한 언론이 다양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정치에 강력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김종배(2008)가 지적한 대로 이러한 ‘가시적’ 폴리널리스트들은 결국 정치권력의 하부단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언론의 권력화가 가속화되던 90년대부터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도 그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같이 증가하고 비로소 진보야당계열로 진출하는 언론인들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으로 진출하는 언론인들은 비록 동기와 보상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있겠으나, 특정 정당과의 병행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 역시 ‘폴리널리스트’가 가지는 부정적 낙인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제헌국회 당시 언론인이 많았던 데에는, 구한말과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이나 사회계몽운동의 주체들이 언론을 주요 기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그들이 정치사회적 엘리트로서 정치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회적 분화와 발전이 미비한 상태에서 언론인은 군인과 관료집단과 함께 한국 사회의 주요 엘리트 집단 중의 하나였으며, 이들이 정치 영역으로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독재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인을 정관계에 끌어들이고, ‘전두환 장학생’이니 하는 정권친화적인 언론인을 길러내기 위해 각종 자리를 제공했음도 그러한 경향을 지속시키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 이러한 언론 관리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이어져 ‘김영삼 장학생’이 곳곳에 포진해 적극적으로 정권 친화적 보도를 담당했던 것이다.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만 따져보았음에도 보수여당 계열이 훨씬 많았던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자리하고 있었다. 청와대나 정부행정직에 진출한 언론인까지 포함하면 이들의 보수여당 성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언론인의 친정부성향은 권력 감시와 비판을 기본활동으로 하는 언론인에게 매우 경계해야 할 속성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적어도 언론인으로서의 대단히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김지운(1989)은 시스템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진보야당 계열의 폴리널리스트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한국 언론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채 정당과의 유착 또는 연대, 병행관계를 가지고 양분된 정치판과 유사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수언론사가 보수여당계열로, 진보언론사가 진보여당계열로 이동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에 더해,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판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연고자본, 다시 말해 고향과 출신고,

출신대학이라는 요소들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 입사 후 정치부를 경험하며 정치인이나 정당과 맺은 인연을 기반으로 정치권으로의 이동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연줄은 그보다 출신지역이나 출신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정치의 강력한 지역주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 병행성과 연고주의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출입처에서의 관계 맺기는 연고자본을 통해 촉발되고 강화, 유지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에 의해 평판이 발생되고 검증되며 개인적 자질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정치적 충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조건에서 언론인은 정계 진출 이전부터 자신의 사회적 자본에 따라 특정 정당에 대해 호의적 관계를 성립,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중 정치학 전공자가 많다는 사실은 이들의 관심이나 성향이 애초에 정치적이었다는 가정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9년 언론인의 정치/법정 전공은 21.5%에서 점점 감소해서 2013년에는 13.2%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89쪽). 그에 비해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은 정치학이 22%가량, 법학 전공이 18%를 넘으니 언론인 집단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치에 대한 열망은 내재적(인구사회학적 요인)인 동시에 외재적(언론사 경력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6대 이후 국회에서 언론인 출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의 권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힘과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정치 엘리트로서의 언론인의 효능이 약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잠재적 정치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직업 군들이 언론인 외에도 다양하게 등장한 것이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법조인 집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언론인의 전문성은 점차 국회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나 인정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언론인보다 상대적으로 선거자금을 동원하기 쉬운 법조인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정치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공천이나 총선에서 공개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렵게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앵커나 아나운서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로 직행하거나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언론인이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과 정치 간 직접적 결속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정치 '대신' 기업으로 진

출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장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권력의 언론 동원 기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에도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도 여전히 외국보다 ‘현저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강준만(2017)은 한국의 ‘정치 지상주의’ 문화와 언론산업의 불안정성, 산학협동 체제의 부재, 언론인이라는 직업의 전후 후박(前厚後薄) 문화, 언론의 신뢰 저하로 인한 자긍심의 박약 등을 들어 설명한다(290~291쪽). 정치 지상주의의 저변에는 입신양명, 출세주의가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엘리트로서 언론인의 지위가 다른 사회보다 높은 탓에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소양과 자질을 언론인에 기대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출신지역과 출신고, 대학 등의 연고자본을 공유하는 정치엘리트와 언론엘리트의 개인적, 집단적 연대관계가 정치충원 과정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강고하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언론과 정치 간의 지배적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중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언론의 정치 병행성을 줄이고 전문직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지향의 언론문화 개선과 지역주의 및 각종 연고요인 등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정치충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언론과 언론인을 도구적 관점에서 통제하고 동원하려는 정치권력이 있는 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정치권력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텅치를 키워온 언론과 언론인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동을 막을 수 없다면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천적 수준의 윤리규정이나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직화의 수준이 낮으니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적어도 현직에서 직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만 그로 인한 타격은 언론계 전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적절하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계 진출 자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정계 진출 이후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분석, 평가를 언론계에서 지속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도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언론사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과연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분석에서 나타났듯, 언론사로 되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2014년 전북기자협회에서 선거캠프나 지방자치단체장 홍보팀 등 참여자 현업 복귀를 2년 제한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분석은 국회의원이 된 언론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폴리널리스트’의 유형을 국

회형, 행정관료형, 청와대형, 정당형, 다분야형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겠다. 선출직형과 임명직형 등의 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정치 입문 경로에 따라 직진형과 우회형으로 나뉘볼 수도 있다. 정치투신형과 타분야 진출형, 언론사 회귀형으로의 구분도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과 분류는 폴리널리스트를 세분화해서 그들의 행동 특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직업윤리만으로 대별되는 찬반논의를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각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다르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요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심층연구도 필요하다. ‘폴리널리스트’가 생산, 소비되는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개괄적 접근과 함께 개별적 사례 연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거나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대변인, 장차관 등 가시적인 폴리널리스트 외에 ‘뜻’을 이루지 못한 ‘비가시적’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분석과 논의도 필요하다. 총리 지명을 받았지만 도중에 낙마한 중앙일보 출신 문창극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고위직 외에도 총선에서 낙선하는 경우나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모두 폴리널리스트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폴리널리스트’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을 둘러싼 기제의 작동 방식과 원리, 변화 등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동시에 범위를 좁혀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자 출신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앙과 지역을 분리해서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이동하는 이유와 경로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다각적 해석을 위한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외국 및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한국 폴리널리스트의 맥락적, 체계적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언론인의 정치 진출에 대해 규범적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정교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다양한 범주의 폴리널리스트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미비하고 부실한 공공데이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명구 (1993). <한국 언론 전문직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강성원 (2017, 2, 8). “전두환 이래 최악 언론장악” ‘해직언론인 특별법’ 발의.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04>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한국 언론 117년사 1883~2000>. 서울: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17). <손석희 현상>. 서울: 인물과사상사.
- 고재열 (2009, 12, 9). MB 정부에 등지 뜬 ‘폴리널리스트’ 88인. <시사인>, 116호. URL: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0>
- 김강석 (2001). <언론인의 권력이동: 조선말 개화기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서울: 새로운사람들.
- 김종배 (2008, 2, 26). ‘폴리널리스트’ 향해 돌 던질 수 있는 언론사 얼마나 되나. <시사인>, 24호.
URL: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8>
- 김주언 (2009). <한국의 언론통제> (개정판). 서울: 리북.
- 김지운 (1989). 언론인의 권력지향사태에 대한 고찰. <사상과 정책>, 봄호, 16-35.
- 김해식 (1994). <한국 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 박용규 (2014).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의 변화. <언론정보연구>, 51권 2호, 34-76.
- 박진우 (2015).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 <한국언론정보학보>, 74호, 177-196.
- 윤영철 (2007). 민주주의의 유형과 언론개혁. 임상원 외 (편),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283-326 쪽). 파주: 나남.
- 이선필 (2009). 이탈리아의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13권 3호, 3-20.
- 이준용 · 조항제 · 송현주 · 정준희 (2010). 한국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민주화 이행 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 87-143.
- 임연희 (2016). <지역신문 장의 위축과 언론인의 정체성: 대전지역 신문기자의 직업이동>.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선 (2008). <기자의 정계진출에 대한 현직 기자들의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미령 (2013). <‘폴리널리스트(polinalist)’의 유형 분류 및 각 유형에 대한 현직 기자의 인식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언론인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치성 · 송상근 · 정완규 (2009). <언론인의 직업 환경과 역할 정체성>. 서울: 한국언론재단.
- 服部 充裕 (2004). <參議院 研究>. 木鐸社.

- Audickas, L. (2016). *Social backgrounds of MPs 1979~2015*. House of Commons Library.
- Ciaglia, A. (2013). Politics in the media and the media in politic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 and political system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8(4), 1-15.
- Errington, W., & Miragliotta, N. (2009). From the gallery to the parliament: Journalis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Senate, 1901~2007.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55(4), 530-543.
- Hallin, D.,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 Three models of media &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수정 · 정준희 · 송현주 · 백미숙 (역) (2009). <미디어 시스템 형성과 진화: 정치-미디어 3모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Mann, T., Ornstein, N. J., Malbin, M., & Reynolds, M. (2017). *Vital Statistics on Congress*. Brookings. Retrieved from https://www.brookings.edu/search/?post_type=research&post_type=multi-chapter-report
- Manning, J. (2017). *Membership of the 115th Congress: A profil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from <https://fas.org/sgp/crs/misc/R44762.pdf>
- Nimmo, D., & Combs, J. (1992). *The political pundits*. New York, NY: Praeger.
- Schudson, M. (2008). *Why democracies need an unlovable press*. Cambridge, UK: Polity Press.
- Schudson, M. (2011). *The sociology of news*. 이강형 (역) (2014). <뉴스의 사회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초 투고일 2017년 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6일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31일

부록

I.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명단: 당선횟수별

구분	수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명단 (제한~20대): 당선자 총 377명
8선	2명	서청원, 이만섭
7선	3명	김진만, 신상우, 오세응
6선	4명	김원기, 서법석, 채문식, 홍사덕
5선	18명	강삼재, 박상훈, 김덕룡, 김영배, 김윤환, 김종하, 김준연, 김충조, 김형오, 남경필, 박병배, 박병석, 박순천, 송원영, 심재철, 유옥우, 이자현, 최치환
4선	32명	고재필, 김성곤, 김용태, 김의택, 김익노, 김종위, 김한길, 남재희, 박영선, 박찬현, 신경식, 신상초, 심명보, 윤보선, 윤치영,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민섭, 이윤성, 이현, 임채정, 정동영, 정진석, 조세형, 조한백, 최경환, 최병렬, 최영철, 한건수, 한선교, 홍길선
3선	40명	강용식, 고귀남, 고희길, 박정출, 김동욱, 김영광, 김영선, 김영우, 김원길, 김인곤, 김정남, 남재두, 노용래, 노희찬, 류경현, 맹형규, 민병두, 박권홍, 박실, 박철웅, 변운전, 손세일, 심재일, 안병규, 안택수, 양순직, 우상호, 이규규, 이부영, 이상돈, 이상철, 이용희, 이종남, 정동채, 정희수, 조경규, 채영석, 최낙도, 최창섭, 최천
2선	84명	강인섭, 권영길, 권해옥, 김경재, 김길홍, 김명규, 김문원, 김병호, 김상훈, 김익준, 김제원, 김지태, 김진구, 김진배, 김태홍, 김택술, 김한수, 남평우, 노승우, 류근찬, 류인학, 류진, 문병호, 문종두, 문학진, 박경석, 박광은, 박규식, 박대출, 박범진, 박선숙, 박성범, 박원홍, 박철, 봉두완, 서동진, 서영희, 서인석, 성원경, 신경민, 신낙균, 신범식, 신성범, 신영균, 신진수, 엄병학, 엄영달, 엄길정, 유용태, 유지원, 윤희용, 이계진, 이교선2, 이남준, 이동근, 이상무, 이우현, 이정일, 이종률, 이종린, 이종식, 이훈구, 임방현, 임진출, 장석윤, 장성원, 전여옥, 정남, 정상천, 정재호, 조국현, 조남조, 조일제, 주병환, 주요한, 지갑중, 채영철, 최구식, 최국현, 최규식, 최세경, 최재욱, 편용호, 황대봉
1선	194명	강성구, 강성원, 강성재, 강승규, 강효상, 고정훈, 고형곤, 광성문, 구창림, 권영자, 권효섭, 길정우, 김근수, 김기도, 김남, 김남중, 김달범, 김동권, 김동성1, 김동성2, 김명자, 김문옥, 김병희, 김봉기, 김석호, 김성낙, 김성수, 김성호, 김세웅, 김양수, 김영기, 김영상, 김영수, 김영호, 김용덕, 김용재, 김용환, 김우석, 김우평, 김인식, 김창열, 김재학, 김재홍, 김중문, 김중민, 김주목, 김진복, 김진봉, 김창동, 김창수1, 김창수2, 김철, 김충수, 김총일, 김태수, 김학준, 김형두, 김효재, 노익환, 류광열, 문부식, 문시환, 문태갑, 민경식, 민경옥, 박귀수, 박병윤, 박상목, 박세동, 박영중, 박용호, 박원탁, 박종희, 박준, 박준영, 박찬, 박찬숙, 박팔봉, 박현서, 박현태, 박형준, 반재현, 배재정, 배헌, 백관수, 서영훈, 서형수, 서호석, 선경식, 선우연, 설창수, 손권배, 손재학, 손주환, 송용식, 송지영, 신경설, 신도성, 신동준, 신병열, 신영수, 신옥철, 신용남, 신준원, 신종식, 신하철, 심상우, 심용택, 안재홍, 안형환, 양덕인, 양재하, 오경의, 오경훈, 오상현, 오석주, 우갑린, 유봉영, 유정현, 윤병환, 윤성한, 윤여준, 윤원호, 윤주영, 이계경, 이구수, 이금중, 이돈만, 이동복, 이상일, 이상조, 이상하, 이원석, 이상득, 이상우, 이수담, 이순희, 이승만, 이승복, 이시목, 이영희, 이우태, 이원영, 이원우, 이원창, 이은태, 이정선, 이종구, 이종영, 이진희, 이찬우, 이채오, 이항발, 이현재, 이홍배, 이환의, 임덕규, 임재정, 장기영, 장세환, 장준하, 전용학, 정구삼, 정근식, 정봉주, 정철기, 정해준, 정현모, 정호선, 조남철, 조순환, 조정무, 주영관, 진경탁, 진성호, 최갑환, 최경식, 최달희, 최명길, 최문순, 최민희, 최병길, 최성웅, 최수환, 최태규, 하상훈, 한석봉(한효섭), 허정, 현승일, 홍정욱, 홍지만, 황창주, 황학수

구분	수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명단 (제헌~20대): 당선자 총 377명
실패 ⁴⁰⁾	233명 이상	강동호, 강승훈, 강영진, 강영현, 강월구, 강윤희, 강지순, 강치원, 고광진, 곽금미, 구동수, 구봉우, 구성재, 구자호, 권기균, 김건, 김금수, 김남경, 김도현, 김동선, 김동완, 김두관, 김두우, 김두일, 김문환, 김범태, 김병수, 김석진, 김선관, 김성기, 김손, 김연광, 김영길, 김영백, 김영성, 김영태, 김용락, 김용해, 김우광, 김원자, 김윤수, 김인걸, 김재목, 김재성, 김재일, 김재철, 김준, 김창호, 김충근, 김택환, 김해규, 김해수, 김현식, 김형기, 김형태, 김희완, 남달구, 남동희, 노동채, 노태숙, 도정옥, 도호기, 류선우, 문성근, 문숙경, 문영희, 민경완, 박영문, 박영석, 박세호, 박옥재, 박인환, 박정태, 박진봉, 박찬희, 박창화, 박형상, 박호성, 박호영, 박홍석, 박홍성, 박희선, 방인철, 배유현, 배종덕, 배종호, 배한진, 백무현, 서영만, 서창식, 설동희, 성유보, 성종대, 손민, 손봉삼, 송두영, 송선근, 송영웅, 송인식, 송재영, 송효익, 신기섭, 신순봉, 신영섭, 신용석, 신원수, 신은경, 신준희, 신철희, 신현국, 심상준, 심양섭, 심재웅, 안광양, 안양로, 안유호, 양규현, 양기대, 양태창, 엄광석, 엄호건, 엄홍우, 오중기, 오태동, 오홍근, 오호진, 원용강, 유용화, 유종필, 유훈근, 유동환, 유두현, 윤산학, 윤상철, 윤재걸, 윤창한, 이광희, 이규민, 이근규, 이길성, 이길용, 이동관, 이동한, 이두엽, 이래원, 이상곤, 이상민, 이상수, 이상춘, 이상희, 이수만, 이영재, 이용운, 이우원, 이재경, 이정균, 이종, 이진동, 이창섭, 이창수, 이태형, 이평수, 이해성, 이현태, 이홍우, 이훈근, 임광순, 임정규, 장기철, 장두원, 장여진, 전광삼, 전수신, 정구운, 정군기, 정남기, 정동익, 정미홍, 정미희, 정성근, 정병철, 정상원, 정영모, 정원조, 정인청, 정진욱, 정찬민, 정택진, 정해훈, 정현채, 정희영, 조규범, 조규선, 조상기, 조순용, 조신, 조영동, 조영환, 조재일, 조희천, 주정화, 차영, 채익석, 채자영, 최금락, 최기덕, 최덕수, 최동철, 최민화, 최병권, 최상현, 최순애, 최윤기, 최종탁, 최택용, 최한수, 최형두, 표철수, 하장보, 한명규, 한범섭, 한창희, 한청수, 한홍수, 함영이, 허문도, 허용범, 허종식, 홍순우, 홍용락, 홍윤오, 홍희근, 황소웅 등

40) 이번 연구가 국회 진입에 성공한 언론인들만을 분석했기에, 이들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인들이며 잠재적인 폴리널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 낙선자의 경우 13~20대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과 평민당-민주당-국민회의-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공천신청자와 총선 출마자만을 포함하기에 누락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14대 민주당 공천신청자는 명단을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제외되었다. 따라서 낙선자 명단은 적어도 이 숫자 이상의 언론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비가시적' 폴리널리스트가 상당수 존재하는 증거자료로 보면 되겠다. 낙선자들 가운데는 두 번 이상 출마했으나 낙선한 경우도 제법 있다.

II.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명단: 국회별

구분	수	국회의원 명단
제헌	41명	곽상훈, 김병희, 김영기, 김용재, 김익노, 김인식, 김장열, 김재학, 김종문, 김준연, 김진구, 노익환, 문시환, 민경식, 박준, 박찬현, 배현, 백관수, 손재학, 오석주, 윤치영, 이구수, 이상돈, 이석, 이성득, 이상우, 이승만, 이종린, 이항발, 이훈구, 정구삼, 정교식, 정해준, 정현모, 조국현, 조한백, 최국현, 최창섭, 최태규, 허정, 홍길선
2대	27명	곽상훈, 김동성2, 김양수, 김영선, 김익노, 김지태, 김택술, 박세동, 박순천, 박철웅, 박팔봉, 서범석, 설창수, 안재홍, 양재하, 엄병학, 윤치영, 이금종, 이상철, 이시목, 이종린, 이종영, 이재우, 조경규, 최국현, 최성웅, 홍길선
3대	29명	곽상훈, 김동욱, 김석호, 김영상, 김영선, 김의택, 김익노, 김준연, 김지태, 김진만, 김창수1, 김택술, 문종두, 박영종, 서동진, 성원경, 손권배, 신도성, 유옥우, 유지원, 윤보선, 윤용구, 윤치영, 이금규, 장석윤, 조경규, 최갑환, 최창섭, 최천
4대	33명	곽상훈, 구철회, 김동욱, 김성근, 김의택, 김익노, 김주목, 김준연, 김진만, 김창동, 문종두, 박병배, 박순천, 박찬현, 박철웅, 반재현, 서범석, 유옥우, 유지원, 윤보선, 윤용구, 이금규, 이순희, 이은태, 이종남, 장석윤, 조경규, 조한백, 주병환, 주요한, 최창섭, 최천, 홍길선
5대	37명	곽상훈, 김동욱, 김문옥, 김상홍, 김영선, 김용환, 김우평, 김의택, 김준연, 류광열, 류진, 박병배, 박상목, 박순천, 박찬현, 서동진, 서범석, 성원경, 신상초, 신준원, 양덕인, 유옥우, 윤병한, 윤보선, 이교선2, 이금규, 이상돈, 이상철, 이종남, 이찬우, 조한백, 주병환, 주요한, 최경식, 최천, 최치환, 홍길선
	10명 (참)	김남중, 김달범, 김진구, 김형두, 박철웅, 엄병학, 이훈구, 조국현, 최달희, 하상훈
6대	23명	고형근, 김상홍, 김성근, 김준연, 김진만, 류진, 박순천, 서범석, 서인석, 신옥철, 양순직, 우갑린, 윤보선, 이남준, 이만섭, 이상돈, 이상우, 이상철, 이우태, 이종구, 조남철, 최치환, 한건수
7대	23명	고재필, 김성근, 김익준, 김진만, 박병배, 박순천, 서범석, 송원영, 신동준, 신용남, 양순직, 윤치영, 이남준, 이만섭, 이상우, 이우현, 이원영, 이원우, 이현재, 장준하, 조한백, 최치환, 편용호
8대	24명	강성원, 고재필, 김성근, 김의택, 김제원, 김진만, 김한수, 박병배, 박철, 서범석, 송원영, 신상우, 오세웅, 유봉영, 유옥우, 이교선2, 이상조, 이우현, 이종남, 채문식, 최병길, 최세경, 편용호, 한건수
9대	37명	고재필, 권효섭, 김동성1, 김성낙, 김익준, 김제원, 김진만, 김진복, 김진봉, 김충수, 문부식, 문태갑, 박귀수, 박병배, 박찬, 박찬현, 박철, 서영희, 서인석, 송원영, 신범식, 신상우, 신상초, 엄영달, 오세웅, 윤주영, 이승복, 이종식, 이진희, 장기영, 정재호, 주영관, 채문식, 채영철, 최세경, 최영철, 한건수
10대	35명	고귀남, 고재필, 김봉기, 김영광, 김영배, 김영수, 김원기, 김윤환, 김중하, 김진만, 남재희, 류경현, 박권흠, 박헌서, 서영희, 선우연, 송원영, 신범식, 신상우, 신상초, 심용택, 엄영달, 오세웅, 이만섭, 이자현, 이종률, 이종식, 정재호, 조세형, 조일제, 채문식, 채영철, 최영철, 최치환, 한건수
11대	49명	고귀남, 고정훈, 곽정출, 김문원, 김영광, 김용태, 김원기, 김윤환, 김정남, 김중하, 김진배, 김태수, 남재두, 남재희, 류경현, 박경석, 박권흠, 박원탁, 박현태, 봉두완, 서청원, 손세일, 송지영, 신상우, 신상초, 신진수, 심명보, 심상우, 안병규, 염길정, 오상현, 오세웅, 유옥우, 이만섭, 이만섭, 이영희, 이자현, 이홍배, 임덕규, 임방현, 임재정, 정남, 조남조, 조일제, 지갑중, 채문식, 최수환, 최영철, 홍사덕
12대	42명	강삼재, 강용식, 고귀남, 곽정출, 김영배, 김용태, 김정남, 김중위, 김학준, 김한수, 남재두, 남재희, 류경현, 박경석, 박권흠, 박규식, 박실, 봉두완, 송용식, 송원영, 신경설, 신병열, 심명보, 안병규, 염길정, 오세웅, 이만섭, 이만섭, 이자현, 이종률, 임방현, 정남, 조남조, 지갑중, 채문식, 최낙도, 최병렬, 최영철, 최치환, 한석봉(한효섭), 홍사덕, 황대봉

구분	수	국회의원 명단
13대	41명	강삼재, 권해옥, 김근수, 김길홍, 김남, 김덕룡, 김문원, 김영배, 김용태, 김우석, 김원기, 김윤환, 김인근, 김중위, 김충조, 남재희, 류인학, 박실, 서청원, 손주환, 신경식, 신상우, 신진수, 신하철, 심명보, 안병규, 오경의, 윤성한, 이돈만, 이동근, 이민섭, 이상하, 이웅희, 이자현, 이협, 조세형, 채문식, 채영석, 최낙도, 최재욱, 황대봉
14대	59명	강삼재, 강용식, 강인섭, 광정출, 구창림, 권해옥, 김기도, 김길홍, 김덕룡, 김동권, 김명규, 김영광, 김영배, 김용덕, 김용태, 김원기, 김원길, 김윤환, 김인근, 김정남, 김중하, 김중위, 김충조, 김형오, 남재두, 남평우, 노승우, 류인학, 박규식, 박범진, 박실, 서청원, 서호석, 손세일, 신경식, 신상우, 심명보, 양순직, 오세웅, 이규택, 이동근, 이만섭, 이민섭, 이부영, 이수담, 이웅희, 이자현, 이협, 이환의, 임채정, 정상천, 조세형, 조순환, 진경탁, 채영석, 최낙도, 최병렬, 최재욱, 홍사덕
15대	56명	강삼재, 강성재, 강용식, 권영자, 김경재, 김덕룡, 김명규, 김영배, 김원길, 김윤환, 김인근, 김중하, 김중위, 김진배, 김철, 김충일, 김충조, 김한길, 김형오, 남경필, 남평우, 노승우, 맹형규, 박범진, 박성범, 박원홍, 변웅전, 서청원, 손세일, 신경식, 신낙균, 신상우, 신영균, 안택수, 오세웅, 유용태, 이경재, 이규택, 이동복, 이만섭, 이부영, 이웅희, 이윤성, 이협, 임진출, 임채정, 장성원, 정동영, 정동채, 정상천, 정호선, 조세형, 채영석, 최병렬, 홍사덕, 황학수
16대	55명	강삼재, 강성구, 강인섭, 고흥길, 김경재, 김덕룡, 김병호, 김성호, 김원기, 김원길, 김중하, 김충조, 김태홍, 김한길, 김형오, 남경필, 맹형규, 박병석, 박병윤, 박용호, 박원홍, 박종희, 변웅전, 서영훈, 서청원, 신경식, 신영균, 심재권, 심재철, 안택수, 오경훈, 유용태, 윤여준, 이경재, 이규택, 이낙연, 이만섭, 이부영, 이원창, 이윤성, 이정일, 이협, 임진출, 임채정, 장성원, 전용학, 정동영, 정동채, 정진석, 정철기, 조정무, 최병렬, 현승일, 홍사덕, 황창주
17대	46명	고흥길, 광석문, 권영길, 김덕룡, 김명자, 김병호, 김원기, 김재홍, 김태홍, 김한길, 김형오, 남경필, 노웅래,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민병두, 박병석, 박성범, 박영선, 박찬숙, 박형준, 신중식, 심재철, 안택수, 이상호, 윤원호,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규택, 이낙연, 이윤성, 이정일, 임채정, 전여옥, 정동영, 정동채, 정봉주, 정진석, 정희수,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한선교
18대	41명	강승규, 고흥길, 권영길, 김세웅, 김영우, 김창수2, 김충조, 김형오, 김효재, 남경필, 류근찬, 문학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변웅전, 서청원, 신경식, 신낙균, 신성범, 신영수, 심재철, 안형환, 유정현, 이경재, 이계진, 이낙연, 이윤성, 이정선, 장세환, 전여옥, 정진석, 정희수, 진성호,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문순, 한선교, 홍사덕, 홍정욱
19대	26명	길정우, 김영우, 김한길, 남경필, 노웅래, 노회찬, 문병호, 민병두, 박광은, 박대출, 박병석, 박영선, 배재정, 서청원, 신경민, 신성범, 심재권, 심재철, 이상호, 이낙연, 이상일, 정희수, 최경환, 최민희, 한선교, 홍지만
20대	26명	강효상, 김성수, 김영우, 김병호, 김종민, 노웅래, 노회찬, 민경욱, 민병두, 박광은, 박대출,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준영, 서청원, 서형수, 신경민, 심재권, 심재철, 이상호, 정동영, 정진석, 최경환, 최명길, 한선교

Abstract

From Journalists to Politicians

A Socio-Historical Analysis of Korean 'Polinalists'

Sae-Eun Kim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garding the 'polinalist' as one of the most powerful index to configure an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journalism and politic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olinalists, especially those of the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with journalist backgrounds. In analysing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olitical/journalist careers of all former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 total of 377 had been journalists before serving their terms in office. During the Constitutional Assembly, 20.5% of them had pursued journalism as a career prior to joining the National Assembly; rates have dropped to a mere 8.7% i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y. Yet although the percentage of polinalists has constantly decreased since the 16th National Assembly (20.1%), the rate remains to be higher compared to other nations. In terms of hometown, highschool, alma mater, and college major, most of them were from South Jeolla and North Gyeongsang, had graduated from Kyunggi High School and Jeonju High School, received a bachelor's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 Diplocany and Law, respectively. Additionally, 24% of the polinalists had pursued their journalistic career at Dong-A Ilbo or Chosun Ilbo. A majority of these former journalists entered conservative-ruling parties through proportional representation/national constituencies rather than local constituencies. The rece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polinalists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recourse to a number of reas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mplication of entering the legislative body, the diversification of types/channels of 'polinalism', and the reduction of journalists' political use-value, which also indicates the structural change for journalists to transform to politician. Yet at the same time, despite such decreases, the reason 'polinalists' are more common in Korea than they are in other countries can be explained by Korea's cultural backdrop which lauds the achievement of fame and prestige, prioritising politics above other values. Likewise, the high level of political

parallelism and instrumentalisation of Korean journalism as well as its low professionalism and decrease of occupational stability also explain as to why there are particularly more polinalists in Korea.

Keywords: polinalist, journalist,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allelism, professionalism